

신라의 ‘예악(禮樂)’ 사상이 현대음악교육에 주는 교육적 의미

하 성 일*

본 연구는 국가적으로 ‘정(情)과 의리(義理)’의 사회문화가 지배하는 신라사회의 중심에 화랑도가 있었으며, 예악(禮樂) 중심의 화랑도 교육이 사회 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삼국을 통일시켜 국가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얼마만큼 큰 역할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후발국가인 신라가 통일을 이루고 빛나는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음악을 중시하는 화랑도 정신의 계승 발전임을 현대 음악 교육적 차원에서 교훈으로 삼아 그 시사점을 찾고, 현대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발전방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 주제어 : 신라, 예악(禮樂), 화랑도, 현대음악교육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신라 사회와 음악
 1. 신라의 음악
 2. 신라인의 음악 세계
- III. 화랑도와 음악교육
 1. 화랑도의 기능과 교육 내용
 2. 화랑도의 음악 교육적 함의
- IV. 신라 음악사상이 현대음악교육 주는 시사점과 발전적 모색
 1. 시사점
 2. 발전적 모색
- V. 결 론

* 진주교육대학교 강사

I. 들어가기

현대한국의 음악교육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듣고, 부르며, 연주해보는 즐거운 시간이 초등학교시절에서 끝이 나고 중학교부터는 명분만 국민공통 기본교육이지 실상은 크게 의미 없는 과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서는 음악교과 시간까지 빼앗아 가며 수능에 열중해야 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또한 효율성을 내세워 음악과 미술을 예술 교과군으로 묶어 고유한 과목의 역할이 어렵게 되었다. 평가에 있어서도 상중하로 3단계로 단순화되고 탈내신화 되어 학생들에게 있어서 적당히 성의를 보이면 되는 과목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음악교과의 고유한 목표인 인성, 창의성 계발과는 점점 거리를 멀어지고 있으며 학교교육에서의 위상과 그 내실에 있어서 적잖게 위기를 맞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입시에 도움이 된다면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국정운영의 기본철학을 실용주의에 두고 있다. 실용주의는 투입대비 산출의 효과를 중시하며 따라서 계산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도구적 이성을 중요한 가치판단의 방법으로 활용한다. 도구적 이성의 중시는 과학·건설·창조·발전 등의 가치에 비중이 높아 지적·심미적 만족과 인류 역사상 소중하게 여겨온 보편적 가치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그 실용주의는 지금의 학교교육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예능 관련 특기나 소질을 계발하는 심미적인 교과는 소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서 집중이수제인데, 학력향상을 위해 예능 교육을 학기별로 몰아서 수업하는 교육수월성은 학생들이 그나마 일주일에 한번 만나게 되는 음악의 즐거움을 빼앗고, 정서순화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인 흐름에 어쩔 수 없이 부합되어가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음악문화에 대한 저변이 취약한 근원적 이유로 작용하는 악순환이라 볼 수 있다.

음악교육의 경시 풍조는 청소년들의 정서 불안, 창의성의 결여, 조화롭

지 못한 공동체 생활, 이기주의의 만연, 웃음과 감성적 표현력이 결여 등으로 나타나게 되어 각종 일탈과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최근 들어 여러 연구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국가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음악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교육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유럽의 학교교육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예체능 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덕체(智德體)'가 아니라 '체덕지(體德智)'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 조화로운 인격, 풍부한 감성과 심미적 태도를 구비하기 위한 필수 교육과정인 음악이다. 이들 국가에서 음악 교육은 생애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이며, 교육의 시작과 마무리를 이루는 삶의 과정 그 자체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음악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보다도 음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교육 선진국에서 찾아보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전통사회 속에서 찾아보는 작업은 부족하였다. 논자는 우리민족 고유의 교육단체이자 독특한 교육내용으로 공동체의식을 지향한 신라 화랑도를 중심으로 신라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예악(禮樂)을 중시하는 국가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살펴서 음악교육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라 화랑도가 김대문이 저술한 『화랑세기』 필사본의 등장과 함께 순국무사(殉國武士)라는 기존의 이미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신라사회의 특징과 교육내용, 사회문화 속에서 음악의 역할과 음악교육이 어떻게 중시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신라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징은 '정(情)과 의리(義理)'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화랑도가 있었으며, 화랑도는 예악(禮樂)중심의 음악교육을 중시한 것에 주목하여, 음악교육이 사회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삼국을 통일시켜 국가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얼마만큼 큰 역할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

하여 신라가 통일을 이루고 빛나는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음악을 중시하는 화랑도 정신의 계승 발전임을 교훈으로 삼아 그 시사점을 찾고, 국가 발전차원에서 퇴색되어 가는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신라사회와 음악

1. 신라의 음악

신라인과 신라사회의 정신적·문화적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情)과 의리(義理)’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의식의 저변에 흐르는 특징을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음악이다. 본래 ‘음(音)’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악(樂)’은 윤리(倫理)에 통하는 것이기에(『예기(禮記)』, 『樂記』, 제19.), 신라사회의 음악을 알면 신라인들의 인심을 읽을 수 있고, 신라의 음악과 신라인들의 마음을 알면 신라사회의 정치사회적 예법(禮法)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삼국유사』 ‘서(敍)’에는 무릇 옛날 성인이 바야흐로 예악(禮樂)으로써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仁義)로써 교화를 베푸는데 있어서 괴변이나 폭력이나 도깨비 이야기는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다(『삼국사기』 권 제1, 紀異 제2.)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지은이 일연선사가 유학자가 아닌 스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은 예로부터 예악(禮樂)이 매우 중요한 국가이념이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신라 음악의 등장은 정치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에 가악(歌樂)이 처음 등장하게 된 유래를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왕(유리이사금)이 나라 안을 순행하다가 웬 노파가 굶주리고 얼어 죽어 감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하찮은 몸으로 왕위에 있어 능히 백성을 기르지 못하고 노인과 어린이로 하여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하니 이는 나의 죄이다.”라고 말한 후 옷을 벗어 그를 덮어주고 음식을 먹인 후 이내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곳곳마다 흠아비, 흠어미, 고아, 아들 없는 이, 늙은이, 병든 이로써 자활할 수 없는 자를 찾아 식료를 주어 부양하였더니 이에 이웃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오는 자가 많았다. 이에 좋은 서민들의 풍속이 편안하고 비로소 도솔가(兜率歌)를 지었으니 이것이 노래와 음악(歌樂)의 시작이었다(『삼국사기』 권 제1, 新羅本紀 제1, ‘儒理’.).

도솔가는 향가인 것을 보면 아마도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자 편안해진 풍속을 노래와 음악으로서 표현하였던 것이 신라 음악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신라는 음악으로 풍속을 교화하고 태평스러움을 구가하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에는 국가적으로 음악을 관리하던 전문기관으로 음성서(音聲署)가 있었다. 음성서는 651년(진덕왕 5년) 무렵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경덕왕 때 대악감(大樂監)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혜공왕이 다시 음성서라 하였던 것으로 나온다(『삼국사기』 권 제38, 雜志, 제7, ‘官職 上’). 음성서가 예부(禮部)에 속했다는 기록은 그 역할이 주로 의례(儀禮) 중에 악을 연주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신라 궁중에서는 해마다 정월(正月)이면 신궁(神宮)에 들러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길례(吉禮)가 있었다는 내용도 등장하는 데 음성서는 이러한 국가 행사에서 음악을 연주했다.

음성서에는 장(長) 2명, 대사(大舍) 2명, 사(史) 4명을 두었다. 이 가운데 장(長)과 대사(大舍)는 17등의 관계(官階) 중 제12등이며 4두품 출신 정도가 오를 수 있는 관직이므로 상당히 비중 있는 관직이라 할 수 있다. 비중 있는 관리가 업무를 보았다면 그 부서 또한 그 만큼의 비중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 음성서는 결코 가벼운 부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음성서는 악공(樂工)들의 교육도 담당하였는데, 악공들은 악기 연주 외에도 노래와 춤도 함께 배웠다. 『화랑세기』에는 23세 풍월주 군관공(軍官公)의 아버지 동란(冬蘭)이 음성서의 장(長)으로 있었는데, 향가를 잘하였다는 기

록이 있다. 동란공은 왕족인 황종(荒宗)의 아들이고, 군관공의 어머니는 석명공주(昔明公主)로 진지왕의 딸이었다. 석명공주는 군관공에게서 가무를 배우다가 정이 들어 결혼하였다(『화랑세기』 '23세 軍官公')는 내용만으로도 음성서의 장은 향가나 가무(歌舞)에 뛰어났던 인물로 때로는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개인적인 지도가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신라가 음성서를 두어 음악을 관리하였다는 것은 음악 연주와 악공들의 교육에 국가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신라에는 각각 세 가지의 관악기와 현악기, 그리고 박판(拍板)과 큰 북이 있었다. 물론 이들 악기 이전에 '적(笛)'이라는 일종의 피리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관악기와 현악기, 그리고 타악기가 만들어지고 이들 악기 연주법을 익히고자 한 것은 국가적인 의례(儀禮)가 있을 때 음성서 주관으로 연주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세 가지 현악기는 현금(玄琴)·가야금(伽倻琴)·비파(琵琶)이고, 관악기는 대금(大箏)·중금(中箏)·소금(小箏)이다. 현금은 중국의 것을 본 떠 제작한 것이며, 거문고 비파 등과 함께 여러 곡을 만들어 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채로운 점은 이들 악기의 제작과 연주에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다(『삼국사기』 권 제32, 雜志, 제1, '音樂').

신라에서는 왜 이처럼 음악에 큰 관심을 보이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까?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신라의 음악을 언급하면서 인용한 문헌으로 《풍속통(風俗通)》이 있다. '풍속통'이란 명칭이 암시하듯이 음악은 사회 풍속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풍속을 이끄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유교 경전인 『시경(詩經)』에 나오는 '국풍(國風)'이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노래 모음집이었듯이 '풍속통'은 민중가요의 가사들을 모았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에서는 노래가사를 통해 민의(民意)를 파악하고, 새로운 노래가사를 보급하여 여론을 이끄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때 노래가사는 아마도 향가였을 것이다.

고구려 백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했던 신라로서는 당연히 국민총화(國民總和)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였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음악을

중요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찍이 “소리를 살펴서 음(音)을 알고, 음을 살펴서 악(樂)을 알며, 악을 살펴서 정치를 알 수 있고, 그리하여 다스림의 도리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예기』, 『樂記』, 第十九, “審聲以知音 審音以知樂 審樂以知政 而治道備矣.”)이라는 유교의 예악(禮樂) 이념과도 일치한다. 예악(禮樂)이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유교의 이념과도 일치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가 ‘만파식적(萬波息笛)’의 일화이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만파식적(萬波息笛)’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왕(신라 31대 신문왕)이 감은사에 와서 묵더니 이튿날 오시(午時)에 갈라졌던 대(竹)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데 천지가 진동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서 이레 동안 캄캄하다가 그 달 16일이 되어 바람이 자자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중략)- 용이 대답하기를 “이는 비하자면 한 손으로는 쳐도 소리가 없으나 두 손뼉을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라는 물건도 마주 합한 연후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가룩한 임금의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입니다. 왕이 이 대를 가져다가 저대(피리)를 만들어 불으시면 천하가 화평할 것입니다. - (중략) - 왕의 행차가 돌아와 그 대를 가지고 저대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天尊庫)에 간직하였는데, 이 저대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물에는 비가 오고 장마가 개고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자자했으므로 이름을 ‘거센 물결을 자게 하는 저대 [萬波息笛]’라 하여 국보로 일컬었다(『삼국유사』 권 제2, ‘萬波息笛’).

‘만파식적’의 이야기는 일연이 불교의 관점에서 서술한 내용이기에도 다소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敍事)는 내용의 상징성이 담고 있는 행간의 의미를 탐색해보아야만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나며, 임금이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임금이 백성과 소통하며 언론을 확장해 선정을 펼쳐야하는 것이 도리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 가운데서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한 점은 음악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민심을 안정시키어 국가 안위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신

라인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손백이 마주쳐 소리가 나듯이 선대왕인 문무대왕이 바다 가운데 용(龍)이 되고, 김유신 장군이 천신(天神)이 되어 이처럼 영험한 저대를 나게 하여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추구하였다 함은 삼국통일 이후 분열과 반목으로 얼룩진 사회를 조화와 화합으로 이끌 것을 주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음악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치세법(治世法)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논의 이전에 인간적 감성에 호소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기도 하다. 신라인들은 유달리 ‘정(情)과 의리(義理)’를 중시하는 정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情)은 감정을 뜻하는 것이며, 의리(義理)는 대의(大義)를 존중하는 것으로 치밀하게 합리성과 논리성을 따지기보다는 인정을 중시하고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를 중시하는 신라사회의 특성과도 연결된다. 서로 다르거나 대립되는 존재나 가치를 집약하는 기능을 많은 부분에서 음악을 통해 집약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잠재력이 응집되고 유구한 역사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신라사회의 음악은 이해와 관용의 열린 자세를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예기』에서는 “악(樂)은 같음을 지향하고, 예(禮)는 차이를 지향하는 것”(『예기』, 「樂記」, “樂者爲同 禮者爲異”)이라 했다. 이는 음악이 하나(同)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신라인의 음악 세계

고구려와 백제가 바다 건너 중국과의 교통이 유리하여 중국의 음악을 수입하기 용이했던데 비해 신라는 지리적 조건이 좋지 못하였다. 하지만 신라인들의 음악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적지 않다. 신라사회에서는 음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월명사(月明師)와 물계자(勿稽子)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에 따르면 경덕왕(景德王) 때 경주에는 해가 둘이 나란히 나타나 열흘이 되도록 사라지지 않는 천재지변이 발생하였다. 천문을 맡은 관리의 건의에 따라 왕은 길을 가던 월명사를 불러 기

도를 올리도록 하자 월명사는 “소승이 화랑의 무리에 속했을 따름이라 안다는 것이 향가(鄕歌)뿐이요 불교 노래는 서툰니다.”라고 답하고 향가를 불렀는데 얼마 후에 괴변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 때 월명사가 부른 노래가 유명한 ‘도솔가’이다. 월명사는 이 노래 한편으로 유명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기록은 당시 신라사회의 단면을 엿보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삼국유사』는 일연선사가 역사적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많다. 하늘에 해가 둘이라는 것은 반란세력이 나타난 것을 뜻하는데 그 해결책이 월명사가 향가를 지어 불렀다는 사실은 동요하는 민심을 노래로써 바로 잡았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신라사회는 노래를 포함한 음악이 풍속을 교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당시 사회에서 음악이 단순히 인간 사회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수단을 넘어 천지자연과 인간, 나아가 귀신을 연결하고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점이다. 월명사는 향가를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피리를 잘 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는 월명사의 이러한 행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월명은 언제나 사천왕사(四天王寺)에 살면서 저대(피리)를 잘 불었다. 한번은 달밤에 저대를 불면서 대문 앞 행길로 지나더니 달이 이 때문에 걸음을 멈추었다. 이로 인하여 그 길을 월명리(月明里)라 하였으며 스님도 이 때문에 유명하여졌다. 스님은 능준대사(能俊大師)의 제자이다. 신라 사람들은 향가를 숭상한지가 오래되었다. 대개 시나 송가와 비슷한 것이었던지? 이 때문에 때로는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적이 한 번만이 아니다(『삼국유사』 권 제5, 感通, 제7, ‘月明師 兜率歌’).

위의 내용은 월명사가 저대(저대가 정확히 어떤 악기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고구려, 백제에서도 유행했던 횡적(橫笛)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있을 뿐이다. 횡적은 오늘날의 대금과 유사한 악기로 알려져 있다.)를 잘 불었으며 그로 인해 신라인들은 물론이고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켰다는 점을 기록한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신라인들이 음악을 인간과 귀신,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매개물로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음악은 인간세계

뿐만 아니라 귀신조차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신라인들의 믿음은 여러 기록에 등장한다. 한번은 진평왕 때 화랑들이 금강산을 유람하려 하는데 혜성이 나타나 천체를 어지럽히자 이를 꺼림칙하게 여겨 유람을 멈추려 한 일이 있었다. 이때에 용천 스님이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별자리의 궤변이 사라지고 일본의 군사도 돌아감으로써 도리어 일이 잘 풀려 금강산 유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삼국유사』 권 제 5, 感通, 제7, ‘融天師 彗星歌’). 이처럼 노래는 별자리까지도 감동하게 하여 제 자리를 찾게 한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신라인들이었다.

피리를 잘 불어 밤하늘에 떠가던 달도 발걸음을 멈추었다는 표현은 월명사의 연주 솜씨가 뛰어나 신라인들의 심금을 울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월명사의 연주를 듣고 이에 감동할 수 있었던 신라인들의 감성이 매우 풍부했음을 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신라인들의 풍부한 감성은 이처럼 음악적 환경이 큰 기여를 하였음을 당연한 일이었으며, 월명사처럼 음악에 능한 인물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다는 사실은 신라사회의 음악중시 풍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월명사와 함께 신라인과 음악의 세계를 들추어보는데 참고할 수 있는 인물로 물계자(勿稽子)를 들 수 있다. 물계자는 신라 나해왕(奈解王) 때의 인물로 가야국이 신라를 침범했을 때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일이 있었다. 그러나 태자(太子)의 미움을 받아 논공행상(論功行賞)에서 빠지게 되었고, 뒤 이은 전공(戰功)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공로를 말하는 이가 없게 되자 스스로 몸을 숨기게 되었는데, 이를 『삼국유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물계자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자) 곧 머리를 풀고 거문고를 진 채 사체 산으로 들어가 곧은 성질이 병통임을 서러워하면서 이를 빗대어 노래를 짓고 개울물 소리를 흉내 내어 거문고를 뜯어 곡을 짓고 살면서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삼국유사』 권 제 5, 避隱, 제8, ‘勿稽子’).

물계자의 일화가 수백 년을 지나 고려시대에 까지 이어지고,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 실릴 정도라면 아마도 신라인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던 인물임에 틀림없다. 다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은 『삼국유사』에서 물계자가 세상을 등지고 사체산으로 올라가 거문고를 연주하며 서러운 삶을 살았다는 점을 안타까운 느낌으로 서술한 것에 비해 『삼국사기』에서는 물계자가 공을 세운 후 논공행상이 고르지 못하였음에도 큰 불평 없이 거문고를 가지고 사체산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술하여 물계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부각시킨 점이라 할 수 있다.

물계자가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울 정도로 용맹무쌍하면서도 노래를 짓고 거문고를 연주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문무(文武)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인물들이 일찍부터 음악을 익힐 수 있었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자 그 부당함을 알리기엔커녕 노래와 거문고 연주로 시름을 달래며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살았다는 그의 은일(隱逸)한 삶의 태도는 정감(情感)을 중시하는 고대 신라인들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 사회에서 음악은 삶의 회한을 해소하고 음유적 감성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월명사와 물계자의 일화를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이들의 직업이다. 월명사는 승려의 신분이고, 물계자는 전쟁터에 나가 용맹을 떨쳤던 인물이다. 승려는 불교음악인 범패(梵唄)가 있긴 하지만 월명사는 범패는 잘 모르지만 향가에는 자신이 있었고, 피리를 잘 불렀다는 점이 이채롭다. 월명사와 함께 향가로 유명한 인물로는 충담사(忠談師)가 있다. 충담사 또한 월명사와 같이 불교음악이나 불교계에 큰 이름을 남기지는 않은 인물이다. 그러나 충담사는 남다른 민족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담사는 경덕왕(景德王) 때의 승려로 남다른 민족관을 가지고 있어서 왕에게 충애를 받았으며 '충담(忠談)', 즉 '충성스러운 말'이라는 그의 이름이 가지는 뜻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었던 만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향가를 잘 지었다는 점이다. 충담사가 지은 향가로는 찬기과랑가(讚耆婆郎歌)와 안민가(安民歌)가 남아 전하는데, 특히 안민가는 임금과 신하, 백성의 도리를 노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월명사와 충당사와 같이 향가에 능한 스님들은 현실정치의 개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역사학계는 이러한 현실참여와 개혁사상을 가진 스님들을 ‘당취승’이라고 부른다.

Ⅲ. 화랑도 교육과 음악

1. 화랑의 기능과 역할

화랑도는 현재까지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교육제도이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룬 신라 사회의 인재 양성기관이자 사회 문화를 선도하던 집단적 기능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모아 갈 역사적 실체임에 틀림없다. 이 때문에 화랑도는 천년의 시공을 넘어 늘 중요한 교육·문화적 사료로서 큰 평가를 받아왔다. 화랑도에 관한 논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더불어 필사본 『화랑세기』의 등장으로 더욱 더 폭넓은 담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화랑세기』에 따르면 ‘화랑’이라는 명칭은 화랑의 우두머리인 풍월주(風月主) 가운데 1대 풍월주를 지낸 위화랑의 이름이 화랑이었던 데서 유래한다고 한다(『화랑세기』(발췌본) 「序文」).

신라 화랑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는 『화랑세기』 서문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화랑세기』 서문에는 “옛날에 선도(仙道)는 단지 신(神)을 받드는 일을 주로 하였는데, 국공(國公)들이 무리(화랑)에 들어간 후 선도는 도의(道義)를 서로 힘썼다. 이에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로부터 났고 훌륭한 장군과 용감한 병졸이 이로부터 나왔다(『화랑세기』 「序文」, “古者 仙徒只以奉神爲主 國公列行之後 仙徒以道義相勉 於是 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라고 기술하고 있다. 화랑이 신라 부흥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점은 위 내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화랑의 우두머리였

던 풍월주(風月主)들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위화랑과 이화랑, 사다함과 문노, 보종과 같은 특출한 인물뿐만 아니라 진지왕의 아들이자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아버지인 김용춘과 김유신, 김춘추 등이 모두 화랑 풍월주 출신이었던 사실을 보더라도 화랑은 어진 재상과 훌륭한 장군들을 배출하였던 최고의 단체였음이 증명되는 셈이다.

화랑의 무리는 풍월(風月)이라고 불렀기에 그 우두머리를 풍월주(風月主)라고 하였다. 화랑과 풍월의 관계를 정확히 말하자면, 화랑과 낭도들이 추구하던 도가 풍류도(風流道) 혹은 풍월도(風月道)이고 화랑도는 풍월도를 수행하던 청소년 집단이라 할 수 있다(김상현, 『신라의 사상과 문화』, 一志社, 1999, p.503.). 화랑도의 조직은 크게 좌삼부(左三部), 우삼부(右三部), 전삼부(前三部)로 나누어진다. 좌삼부에서는 도의(道義), 문사(文事), 무사(武事)가 주된 역할이자 임무였고, 우삼부에서는 현묘(玄妙), 예사(藝事), 악사(樂事)를 다루었으며, 전삼부에서는 유화(遊花), 제사(祭祀), 공사(供事)를 다루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서 삼부(三部)에서 가장 중시했던 역할은 도의(道義)·현묘(玄妙)·유화(遊花)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의(道義)는 문무(文武)를 다루었으며, 현묘(玄妙)는 춤, 노래, 향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이 각종 의례나 연회에 필요한 예능을 익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유화(遊花)는 제사와 공사(供事)를 다루었는데, 이 때 공사(供事)는 색사(色事: 성적인 유희를 제공하는 일)를 의미한다.

『화랑세기』 필사본의 등장으로 인해 알려진 이러한 화랑 조직과 역할은 주로 전장에서 순국무사의 모습만으로 그려졌던 기존의 화랑 이미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아직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8세 풍월주 문노(文弩) 때에 이르러 완성된 화랑의 조직과 역할, 남녀의 구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김대문 저/이종욱 역, 『화랑세기』, 소나무, 2005, p34 참조).

<표 1> 문노(文弩) 시절 화랑의 조직과 역할, 남녀의 구성

조 직	조직 내의 역할	주 내용	『삼국사기』 기록	성 별	역할구분
좌삼부 (左三部)	도의(道義)-문사(文事), 무사(武事) (도는 仙道, 義는 武道에 해당됨)	무(武)	相磨以道義	男 중심	道義 위주
우삼부 (右三部)	현묘(玄妙)-예술(藝事), 악사(樂事) (춤, 노래, 향가, 악기 연주)	무(舞)	相悅以歌樂	男과 女	↑ ↓
전삼부 (前三部)	유화(遊花)-제사(祭祀), 공사(供事) (제사와 색사·색사는 색공을 뜻함)	무(巫)	遊娛山水 無遠不至	女 중심	奉神 위주

『화랑세기』의 위와 같은 내용은 『삼국사기』에서 화랑의 활동상을 “도의(道義)로써 서로 연마하고, 가악(歌樂)으로써 서로 즐기며, 산수(山水)를 유람하는 것을 좋아하여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37년.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라고 기록한 각각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화랑의 조직 가운데 문무(文武)를 중심으로 삼았던 좌삼부와 유화(遊花)를 중요한 기능으로 삼았던 전삼부 가운데에 춤과 노래를 담당하였던 우삼부가 위치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문무(文武) 위주의 도의(道義)는 각각 선도(仙道)와 무도(武道)를 의미하며 주로 남성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유화(遊花)는 제사와 색공(色供; 『화랑세기』에 의하면, 색공은 미소년·소녀들로 구성됨.)을 담당하였으며, 주로 여성들이 중심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유화가 제사와 색사(色事)를 담당하였다는 『화랑세기』의 기록을 참고로 하면 김유신과의 사랑으로 유명한 천관녀(天官女) 또한 유화를 담당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화랑의 구성이 남녀를 가리지 않은 것은 신라 사회가 양성평등의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신라는 유달리 여권(女權)이 강하였다. 여왕(女

王)이 존재하였고, 미실(美室)과 같이 왕을 폐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할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성 실력가가 정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여성의 권력이 막강했던 점은 신라사회의 또 다른 문화적 단면이다.

도의(道義)와 유화(遊花)에 비해 춤, 노래, 향가, 피리, 가야금, 거문고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보는 우삼부의 현묘(玄妙)는 그 역할과 화랑내의 비중이 낮은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현묘(玄妙)'라는 말부터가 그렇다.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선생이 난랑비 서문(鸞郎碑序文)에서 밝힌 것처럼 "나라에 현묘(玄妙)한 도(道)가 있으니 이를 풍류(風流)라 한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37년. "國有玄妙之道 曰風流")는 설명은 풍류, 곧 화랑을 수식하는 표현이 '현묘'라는 점에서 춤과 노래, 향가와 악기를 연주하는 우삼부의 활동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현묘(玄妙)의 가장 큰 효용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서로 노래와 음악으로써 즐긴다(相悅以歌樂)'는 것이다. 이는 음악이 조화와 화해와 같은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민족들은 민족 고유의 전통 음악을 가지고 있다. 민족 고유의 전통 음악은 '민족'을 구성하는 주관적 요소, 이를테면 동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때 민족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소가 음악이다. 낯선 이국땅에서 만난 우리 민족이 아리랑 가락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이 경우다. 세계 각국은 각자의 민족음악을 갖고 있기에 음악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의 음악은 종교적 의식과 함께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례(祭禮)와 제천(祭天)행사에서 가악(歌樂)과 가무(歌舞)는 인간과 신의 세계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소통수단이자 천상계와 지상계의 만남을 자축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종교의식에서 음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영혼을 일깨우고 천상계를 위로하며, 인간세계와 천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쟁이 빈번했던 신라사회에서 음악은 죽은 이들의 영

혼을 위무(慰撫)하는 기능을 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의식의 시작과 끝에는 어김없이 음악이 있고, 제사가 끝난 후에도 음악과 춤을 통해 여흥을 즐기도록 하여 구성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신라에 포석사가 있고, 포석정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포석사에서는 주로 제사나 혼인과 같은 의식을 치르고, 그 아래에 있는 포석정에서는 피로연이 열렸던 것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 단오, 팔관회와 연등회, 굿 등 거의 대부분의 종교적 의식에 음악이 빠지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신라가 3부의 조직을 두어 전문적 분야에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화랑이 전인적 인간상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 능통할 수는 없었던 것을 반증한다. 화랑들도 자신이 소속된 부서나 역할에 따라 나름의 개성을 달리 하였으며 전문분야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도의(道義)에 충실하여 순국무사 또는 우주의 진기를 체득하여 선도(仙道)를 실천하였던 인물이거나 아니면 현묘(玄妙)와 같이 춤과 노래에 능했던 인물이거나 유화(遊花)로서 제사와 색사에 능했던 인물은 각 분야의 성격이 상이했던 만큼이나 모든 분야 두루 통달했다고는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음악은 모든 화랑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필수과목이었다.

20세 예원공조에는 화랑세기에서 자주 언급 되고 있는 내용, 즉 선도(仙道)는 보종을 따르고 무도(武道)는 유신을 따랐다고 하며(『화랑세기』 ‘20世 禮元公’, “仙道從寶宗 武道從庾信.”), 7세 설화랑조에는 나라 사람들이 8세 문노의 무리들을 호국선(護國仙)이라 하고 설원랑의 낭도들은 향가를 잘했고 유람을 즐기었다(『화랑세기』 ‘7世 薛花郎’, “薛原之徒 善鄉歌好清遊 故國人指文徒爲護國仙 指薛徒爲雲上人.”)고 하는 것을 보아 이들의 교육 내용 또한 전문분야별로 차이가 있었으리라고 본다.

『화랑세기』에는 7세 풍월주 설화랑(薛花郎)의 낭도들이 향가를 잘하고 유람을 즐기며, 8세 풍월주 문노(文弩)의 낭도들은 무사(武事)를 좋아하며 호탕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24세 천관공조에서는 무사(武事)중심으로 낭정(郎政)이 운영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김대문 저/이종욱 역, 『화랑세기』, 소나무, 2005, p35 참조.). 설화랑 문하의 낭도들이 향가를 잘하고 유람을

즐거다 함은 우삼부와 전삼부의 활동이 활발하였다는 이야기이고, 문노의 낭도들이 무사(武事)를 좋아한 것은 문노가 검(劍)의 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도양단(一刀兩斷)의 호탕한 성격을 가졌던 점과 연결된다. 아울러 후세로 갈수록 향가와 노래, 춤과 제사보다도 무사(武事)를 높이 평가한 것은 당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으로 국가의 운명이 큰 위기에 처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화랑의 활동 내용은 첫째, 화랑은 문무 겸비,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전인적 인간이라는 점이며, 둘째, 화랑은 단순히 순국 무사의 역할 만이 아니라 제사, 공사(色供) 등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고, 셋째, 화랑은 남녀가 공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던 혼성 집단이었으며, 넷째, 3무(武, 舞, 巫) 일치의 기능을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화랑도가 추구하는 인간상이 전인적 인간(全人的 人間)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춤과 노래에 능하고 제사와 색공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다.

2. 화랑도의 음악 교육적 함의

화랑도와 음악과의 연관성은 그 명칭에서부터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화랑을 '풍류(風流)' 또는 '풍월(風月)'이라고도 했는데, '풍월(風月)'은 음악의 또 다른 의미와 통하는 말로 흔히 말하는 '청풍명월(淸風明月)'의 줄임말이다. 화랑을 풍월로 표현한 것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처럼 세속에 욕심을 가지지 않고 청아(淸雅)한 생활과 높은 기상을 키워가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풍류(風流)'는 국문학계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자연을 가까이 접하는 멋의 세계', '멋있는 삶', '음악에 대한 이칭(異稱)', '예술성', '자유분방한 삶', '현실을 초극(超克)한 여유로운 삶' 등이 '풍류(風流)'라는 말 속에 녹아 있다(양언석, "화랑도의 風流세계 고찰", 『새국어교육』, (제27호), 2006, p562.).

『화랑세기』에 따르면, 12세 풍월주 보리공(菩提公)은 화랑집안의 자손

으로, 조부는 1세 풍월주 위화랑(魏花郎)이고, 부모는 4세 풍월주 이화랑(二花郎)과 숙명공주로 15살에 화랑이 되어 토함공에게 역사(史)를 배우고, 이화공에게 노래(歌)를 배웠으며, 문노공으로부터 검(劍)을 배웠고, 미생공에게서 춤(舞)을 배웠다.”는 내용이 나온다(김대문 저/이종욱 역, 『화랑세기』, 소나무, 2005, p36 참조). 이와 같은 내용은 화랑의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화랑의 정통(正統)을 잇는 가풍(家風)과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역사를 가르쳤다는 토함공은 보리공의 아버지 이화랑의 부제로 있었던 인물이다. 비록 스스로 동생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났지만 그대로 부제의 직책을 수행했다면 풍월주에 올랐을 인물이었기에 제대로 된 교육과 인품을 지녔을 것으로 짐작된다. 5세 풍월주인 사다함(斯多含)이 토함공의 동생이다. 춤을 가르친 미생(美生)은 뛰어난 미모로 여성들의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어서 춤에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생(美生)의 노래(歌)만큼은 아버지 이화랑에게서 직접 배웠다는 점이다. 이화랑은 “피부가 백옥같이 부드럽고, 눈은 미소짓는 꽃과 같고, 음율과 문장을 잘하여, 지소태후가 매우 사랑하였다.”(『화랑세기』 ‘4世 二花郎’)는 내용이 나온다. 이처럼 이화랑이 큰 사랑을 받았던 데는 노래를 잘 하였기 때문이다. 『화랑세기』에는 “이화(二花)의 풍류는 신라의 청담(淸淡)이라.”(『화랑세기』 ‘4世 二花郎’)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화랑은 무도(武道)보다는 선도(仙道)와 현묘(玄妙)에 능한 인물로 보인다.

보리공이 아버지에게서 직접 노래를 배웠다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부러움을 살만한 내용이다. 한국사회는 가정에서 춤과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가 매우 부족하다. 세대 간에 선호하는 음악이 크게 차이 나고, 가족 간에 어우러져 출 수 있는 마땅한 춤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향가와 노동요, 농악, 아리랑과 같은 지방의 특색을 살린 음악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과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음악은 점차 상실되고 말았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다는 것은 민족문화의 크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비해 보리공이 부친 이화랑에게서 노래를 배웠다

는 사실은 부자지간의 정겨움을 넘어 신라사회에 노래와 춤이 일상생활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과 학교, 각종 사회단체에서 음악의 갖는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을 찾는 데에 적잖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보리공은 청렴결백하며 지조를 지키어 근심과 재난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부가 함께 가서 위로하고 구호하며 재물을 나누어 주는 바람에 낭도들이 부모와 같이 우러러 보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인정이 넘쳤던 인물이었다(『화랑세기』 '12世 菩提公'). 어쩌면 보리공이 이처럼 정감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역사와 검술, 춤, 노래를 함께 배우고 익혔기에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로 세우고 대의(大義)를 향한 목적의식을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검술은 지성과 더불어 야성(野性)을 기르게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렇다면 노래와 춤은 왜 중요한 교육내용이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화랑들이 한량, 심하게는 기생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가무를 배웠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화랑은 문무(文武)를 겸비하고,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어 덕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전인적 인간이었다. 따라서 지성미와 야성미의 조화를 추구하고, 가무(歌舞)와 예악(藝樂)을 통해 기(氣)의 역동성과 발산성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건이었을 것이다. 함께 노래와 음악을 즐기으로써 국론을 결집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며, 상하계층의 화합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화랑세기』는 화랑 풍월주 32명의 전기를 모은 글이다. 32명의 풍월주들은 당시 사회의 촉망받는 국가 동량들이었으며, 김유신과 같이 삼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며 김춘추처럼 왕위에 까지 오른 인물도 있다. 풍월주 가운데는 향가 또는 피리와 같은 악기 연주에 능한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7세 풍월주인 설화랑(薛花郎)을 들 수 있다.

설화랑의 본명은 설원랑으로 아버지 설성과 어머니인 금진의 신분이 미천하여 풍월주에 오르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화랑의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옥피리(玉笛)를 잘 불었기 때문이며, 당대 최고의 여성 실력가였던 미실의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미실은 풍채가 아름답고 피리를 잘 불었던 설원랑을 정치적으로 후원하여 마침내 풍월주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 『화랑세기』에는 설원랑과 문노를 각각 운상인(雲上人)과 호국선(護國仙)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설원랑을 따르는 낭도들은 향가를 잘하고 속세를 떠나 유람을 즐기는데 비해 문노의 낭도들은 용맹하고 의리를 중시하였다.

신라사회는 이처럼 전쟁이 그치지 않던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피리를 잘 불고 향가를 잘하는 설원랑이 검의 달인이자 훌륭한 장수로 혁혁한 무공을 세웠던 문노와 더불어 정치적 라이벌로써 대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춤과 같은 예술을 우대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이채롭다.

이것은 신라의 음악이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기는(相悅以歌樂)’는 사회적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서로 즐기는 수준을 넘어 ‘우주·자연의 맑음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기운(宇宙淸元之氣)’에 정통하고, 이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보종이다. 『화랑세기』에서는 보종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공의 성품은 청아(淸雅)하였고 문장을 좋아하였으며 정이 많았다. 사람들을 위하여 웃고 울었으며, 온화함과 순량함은 마치 부녀자와 같았다. -중략- 선과 악, 이로움과 해로움을 나누지 않았다. 늘 작은 청려(淸麗)에 걸터앉아 피리를 불며 시가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진선공자(眞仙公子)’라고 하였다(『화랑세기』 ‘16世 宝宗公’).

보종은 위의 내용과 같이 선도(仙道)에 뛰어난 인물은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였으며, 예악(藝樂)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리를 잘 불고 그림 솜씨가 뛰어나 인물로 남다른 예술적 소질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종이 ‘진선공자(眞仙公子)’로 불렸던 것은 단순히 예술적 기능이 뛰어났던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평소의 인품과 덕행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에 얻을 수 있었던 명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러한 명예 속에는 그의 예술적 자질이 큰 몫을 차지한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신라인들에게 음악과 춤, 그리고 미술과 같은 예능이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그러한 기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중시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IV. 신라 음악사상이 현대음악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발전적 모색

1. 시사점

화랑의 조직과 교육내용, 그리고 역사적 사료들에서 발견되는 신라사회의 모습은 현대음악 교육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신라인들의 인간관계는 정(情)과 의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풍월주 가운데는 설화랑과 보종, 보리공과 같이 정(情)이 넘쳐흐르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문노와 사다함처럼 의리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인물도 있다. 이 때 인정을 중시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와 악기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점이다. 『화랑세기』는 화랑 풍월주들이 향가에 능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당대 최고의 정치적 여성 실력가였던 미실이 직접 지었던 향가가 올라있다(이종욱,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pp.509~510). 신라 향가는 고대 한국사회의 음악사와 국문학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다시 이들은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음악이 가지는 가치와 효용을 최고의 상태로 끌어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

를 지닌다 하겠다.

신라인들은 ‘소리(音)’에 대한 독특한 느낌, 즉 특별한 음감(音感)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과 같은 과학적인 진동원리를 가진 종소리를 만들어 내고 이를 즐길 줄 알았던 신라인들, 설화랑과 보종, 월명사처럼 피리를 잘 불어 유명인이 될 수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 향가를 즐기었던 모습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신라인들에게 음악은 곧 삶을 구성하는 일상생활 그 자체였다.

신라는 음악을 사회통합의 도구로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음악은 상호 대립되는 이념과 사회적 갈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화합을 이루게 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향가를 통해 풍속을 교정하고 민의(民意)를 수렴함과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어 국난을 이겨내는 모습은 음악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한껏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국난이 있을 때마다 피리를 불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만파식적(萬波息笛)과 같은 설화가 생겨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사회에서의 역사, 검술, 춤, 노래가 화랑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었던 사실은 신라사회에서 차지하는 음악교육의 비중이 높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화랑 풍월주는 당 시대의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음악이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었다는 사실은 신라사회의 엘리트교육에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교육제도가 앞서가는 유럽에서 음악교육이 갖는 중요성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대부분의 문화 선진국에서는 음악과 문학을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두고 있으며, 음악적 기량과 음악적 활동을 대학입학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곳도 많다.

글로벌시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의적 사고가 생명이다. 남다른 아이디어와 적응력, 조화성, 집중력을 기르는데 음악보다 더 좋은 교육내용은 없다. 음악은 내적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일깨우는 기능이 탁월하다. 화랑들이 국난이 있을

때는 순국무사로서, 평화의 시기에는 재능 있는 신하로, 가정과 사회에서는 멋과 정감 있는 자세로 풍류를 즐길 수 있었던 것도 음악교육의 힘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십 발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정서적 안정감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화합을 일구어 내야 하는 데는 합창하고 합주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려는 음악적 활동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국가의栋梁(棟樑)이 되었던 화랑 풍월주들은 정(情)과 의(義)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 자신을 따르는 낭도들을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였다.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나누었으며, 이해(利害)를 초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우주자연의 진기(眞氣)에 정통하여 일체의 생명을 존중하는 화랑의 태도는 청아(清雅)한 멋을 풍기는 진정한 엘리트이다.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과 파트너십은 이처럼 신뢰성과 진실성, 단결성과 개방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인간을 넘어 우주자연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신라사회에서 이러한 엘리트 양성을 가능하게 만든 교육이 바로 음악이었다는 점에서 음악은 기능을 넘어 사회학이며, 철학이다.

2. 발전적 모색

신라의 화랑도는 현대음악교육의 성격과 목표에 가장 이상적인 교육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교육단체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음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즐기는 음악교육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악보를 읽고, 계명창을 반복하며, 이론 공부에 얽매이는 음악교육이 아니라 듣고, 연주하며, 부르고 즐기는 음악 교육 방법에 대한 제고이다. '음악공부'가 아닌 '음악하기'로 교육의 모습을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대회입상이라는 음악교육의 굴레에서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눈앞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학생들을 내몰기보다는 자생적인 동아리 활동 등을 장려하는 것이 절실하다. 신라 화랑들은 자연을 벗삼아 여행을 하고 노래를 공부하는 의미보다 즐기면서

생활의 활력과 안정감을 얻고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여 사회 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둘째, 개인의 감성을 가꾸고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악 교육의 목표는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에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느낌과 감정·생각·상상 등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문내용에 신라인들은 유달리 뛰어난 음감(音感)과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나가 음악에 있어서 생활화란 표현법을 교육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획과 구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자신의 감성을 가꾸어 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김정두, 1990).

셋째, 현재 10학년(고1학년)에 그치고 있는 음악교육을 고3인 12학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신라 사회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신라인들의 풍부한 감성을 키우는데 공헌한 물계자와 월명사처럼 일생을 걸쳐 노래하고 연주하며 생활하는 모습으로 신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사실이 현대음악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음악교육은 입시 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등학교부터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음악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평생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각종 영재교육 기관의 의무적인 음악교과의 편성이다. 음악은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사회적 기능과 함께 창의적 사고와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진작시키는 연구 결과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화랑도 교육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신라사회는 뛰어난 인물일수록 향가와 노래, 연주, 춤 등에서 남다른 소질과 재능을 보였던 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각종 영재들이 모여 있는 학교일수록 음악교과가 없거나 교사를 두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음악교육이 없는 영재교육은 교육의 기초와 체질을 허약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학습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음악교육에 대한 투자를 음악인 스스로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음악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다음 세대를 살아 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자산이다. 전인교육을 추구했던 신라 화랑이 지향했던 모습은 바른 인격을 갖춘 종합 예술인이었다. 또한 그것이 신라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모두가 종합 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예능교육의 강화에 음악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가 발전과 21세기의 글로벌시대의 주인이 되는 지름길이다.

V. 결 론

음악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는 개인의 정서안정과 함께 사회의 풍속을 순화하고, 유연성과 창의성, 구성원간의 상호 이해도를 증진시켜 공동체의 단결과 발전을 추구하기가 용이하다. 음악교육의 정상화는 교실과 학교를 즐거움의 장으로 탈바꿈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음악교육의 승패여부가 교육의 승패와 직결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음악교육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공동과제이다.

음악은 인간의 지적·심미적 만족감과 정서적 안정과 생(生)의 역동성 내지 에너지를 충만하게 한다는 점에서 빠질 수 없는 교육과정이자 문화생활 영역이다. 아울러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참다운 인간성의 발휘를 조장하는 것, 즉 전인적 인간의 양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음악교육의 목적을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음악을 실제 생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과 활동에서는 음악의 유용함을 실제로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음악교육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신라의 국가 이념이 예악 사상이나 '정(情)과 의리(義理)'에 충실하였다는 단정적인 자료가 충분하게 근거로 제시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러한 사상들을 긍정적으로만 조명할 수도 없다. 하지만 신라인의 전반적인 '禮'의 중시로 국가발전의 기틀을 세우는데 음악을 즐기고 실제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한 것이 작용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밝혀져 있다. 설화나 민요 그리고 신라 지배층의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국가 주요 행사나 사상의 중심에 음악을 중히 여겼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현대 음악교육에서 목적으로 하는 음악의 생활화에도 연결된다. '禮'를 중시하고 음악을 생활화하여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신라의 화랑도 정신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화랑도 정신이 가진 풍부한 감성과 뛰어난 음악적 향유는 신라인의 정신을 바로 세워 천년의 영화를 누리게 하였다. 신라 사회에서 보듯이 음악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는 개인의 정신안정과 함께 사회의 풍속을 순화하고, 유연성과 창의성, 구성원간의 상호 이해도를 증진시켜 공동체의 단결과 발전을 추구하기 용이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패륜적 행동과 사회적 불협화음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의 정상화에서부터 교정의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으로 빛나는 발전을 거듭하게 된 신라인의 음악사랑 정신을 겸허하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대문 저, 이종욱 역 (2005). **화랑세기**. 서울: 소나무.
- 김미현 (2001). **禮記를 통해 본 東洋의 音樂教育觀**. 석사학위논문. 카톨릭 대학교, 대구.
- 김상현 (1999). **신라의 사상과 문화**. 서울: 一志社.
- 김정두 (1990). **健全한 音樂의 生活化를 위한 音樂教育의 方向에 對한 研究**. 전북대학교 논문집 vol.32.
- 신재홍 (2005). **화랑세기에 나타난 화랑의 이념과 향가**. 서울: 겨레어문학, 제34집.

- 양언석 (2006). 화랑도의 風流세계 고찰. 서울: 새국어교육, 제27호.
- 우실하 (1999). 전통문화의 구성 원리. 서울: 소나무.
- 유지신 (2010). 禮樂의 기원과 전개에 관한 小考. 유교문화연구 17권.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 이종욱 (2000).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서울: 김영사.
- 《화랑세기》 필사본.

ABSTRACT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f the 'YE·AK' Ideal in *Shilla* Dynasty on Modern Music Education

Ha, Seoungil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analysis of problems, the searching for a model to 'YE·AK' ideal in Shilla, and presentation of new direction in Korean music education.

Korean music education has been in dangerous situation maintained in knowledge for the entrance examination, which has destroyed the main purpose of music education.

Shilla dynasty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duty and humanity. The principle of duty and humanity was considered as life itself. Wharang, the organization of education for fit person was served as training school for fighter at war and for student, artist and mourner at peace. Especially the chief of Wharang, Fungwhalzu devoted his private desire and goal to the benefit of public. The contents of this education were swordsmanship, history, song and dance. In these contents song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Song and dance encourage human emotion to be good conditions and enforce the tie of communities. In this point of view Shilla dynasty promoted widely song and dance. Eungsungsue, a government office to promote song and dance was established. The person who can sing and dance well was esteemed by the society.

Our music education should be re-recognized in the importance and improved in the entrance examination. Sufficient educational period for music must be guaranteed. In many curriculum including talent music educational course have to be essential. In addition music educational course should be changed from theoretical and functional to activities and enjoyable. Government and educational authorities must supply a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in music education.

The condition of advanced musical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venture marketed. The research of musical educational system in traditional culture must be inquired and applied to the present music education. Now the reform and normalization of Korean music education ar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Korean education.

key words: Shilla Wharang, Fungryu, Fungwhal, music education

투고일: 1월 31일, 심사(수정)일: 3월 12일(3월 24일), 게재확정일: 4월 13일